

## 메시지 4

### 계속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움직임 안에서 생활함

성경: 행 1:8, 2:46-47, 4:33, 5:20, 41-42, 8:4, 9:31, 13:1-4, 28:31, 겔 1:15-21

- 행전 1: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 2:46-47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 4:33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 5:20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니,
- 5:41-4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 8:4 흠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였다.
- 9:31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증가되었다.
- 13:1-4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 28: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 겔 1:15-21 그때에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 두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I.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고 그분의 증거인 교회의 확산을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시도록 그분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길을 내어드림으로써, 사람을 신화하는 그분의 유일한 움직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행 3:16-19, 행 1:8, 9:31, 13:1-4, 28:31.

- A.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셨지만,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후인 오순절날 그분은 한 사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로 확대되시고 확장되셨다—행 2:41, 9:4-5.
- B.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릇이신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움직이셨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계속인 ‘사도행전 29장’에서 하나님은 단체적인 그릇인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행 4:13, 16, 5:20, 28-39, 9:15.

- C.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움직임은 단지 우리가 그 영'과' 하나 일 뿐 아니라 우리'와' 그 영이 하나라는 것을 예증한다—행 16:6-7, 롬 8:16, 고전 6:17, 참조 요 10:30.
- D.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길은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움직임 안에 그 영께서 움직이시는 길이다—행 13:9, 52, 17:16, 19:21, 계 22:17상.
- E.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은 바퀴로 상징된다. 각 지방 교회와 믿는 이 개개인에게는 높고 무서운 바퀴가 함께 있어야 한다—겔 1:15, 18, 행 13:1-4.
1. 우리 자신은 작아야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바퀴, 즉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은 높고 무서워야 한다—행 1:8, 2:46-47, 4:33, 5:41-42, 8:4, 8, 17:6하, 고전 15:9-10, 고후 12:11, 엡 3:8-11.
  2. 바퀴가 녹주석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가리킨다—겔 1:16상, 단 10:6.
  3. 바퀴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이 모든 교회 안에서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겔 1:16하, 참조 계 1:12, 살전 2:14.
  4. 바퀴가 네 방향으로 가고 움직일 때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동역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리킨다—겔 1:17.
  5. 높고 무서운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움직임을 더 가질수록 더 빛 비춤 받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겔 1:18.
  6. 바퀴 안에 있는 바퀴(겔 1:16)는 우리의 움직임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 안에 있는 바퀴, 곧 축이신 주님은 밖에 있는 바퀴, 곧 둘레인 교회의 움직임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시다—빌 4:13, 골 1:17하, 28-29.
    - a. 엘리야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퀴 안에 있는 바퀴이다—약 5:17.
    - b. 우리의 움직임이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의 움직임 안에는 분명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바퀴들이 생물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움직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겔 1:19, 참조 전 11:4.
  7. 바퀴들은 생물들을 따르고 생물들은 그 영을 따르지만, 그 영은 바퀴들 안에 있다—겔 1:19-21.
    - a.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심을 가리킨다.
    - b. 주님은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따르며 그 영은 바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이 육체 되심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겔 1:19-21, 고전 6:17, 7:10, 행 16:6-10.

II. 사도행전에 끝이 없는 것은 사도행전이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움직임, 주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생명의 흐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계 22:1, 3하, 요 5:17, 마 25:21.

A. 성경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생명의 샘이신 아들, 생명의 강이

신 그 영을 계시한다—렘 2:13, 시 36:9상, 요 4:14, 7:37-39.

- B. 흐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다—계 22:1.
- C. 성경에는 오직 한 흐름, 오직 하나의 신성한 흐름, 주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이 있다—고전 16:10, 3:12, 참조 창 2:10-14.
- D.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에 오직 한 흐름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행 15:35-41.
  - 1. 오순절날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단 하나의 흐름이다.
  - 2. 교회는 역대로 항상 그 영의 한 흐름이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모두가 한 흐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 3.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일은 짐이 아니라 안식이다. 우리 안에 그 영으로서 살아 계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짐을 지실 때, 그 일은 하기가 쉽고 그 짐은 지기가 쉽다—마 11:28-30, 빌 3:3, 롬 1:9, 고전 15:10.
  - 4. 우리는 반드시 내적 흐름, 곧 우리 속에서 흐르시는 주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림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겔 47:1, 골 1:18하.
  - 5.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일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한다—찬송가 650장 (영어 찬송가 직역).
    - a. 스스로 선택한 길로 안 가고 /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리 / 그곳에 생수가 흐르며 / 우리의 어둠 빛으로 변하라—1절.
    - b. 내 스스로 결정한 일 / 주님의 인정받지 못 하네 /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일이나 / 다만 주님 위해 겸손히 그 일 이루리라—2절.
    - c. 이처럼 우리는 죽고 죽음으로 사네 / 주님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 이처럼 우리 섬기고 기도하며 드릴 때 /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큰 보상 되리라—5절.